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남해군 브리핑

남해군수 장충남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남해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남해군을 방문했던 코로나19 확진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증상발현 전 우리군을 방문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지역감염자는 없습니다.

아산시 확진자는 지난 4일 삼동면 소재 식당을 방문한 후
8일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우리군은 해당 식당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식당 종사자 6명과

35건의 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파악한 우리군 접촉자 4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군민은
모두 1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참가 군민을 인솔한 책임자로부터
참가자 전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남해군에 머물렀던 서울시 송파구 확진자는 비공개로 결정했던 펜션과 식당, 주유소를 포함해 두곡·월포해수욕장 내 샤워장과 꼭두방수산매점을 방문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는 방역조치를 완료했으며, 우리군 접촉자로 파악된 9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확진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남해군을 방문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까지 펜션에만 머물렀습니다.

우리군은 해당 펜션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했으며, 펜션 종사자 1명도 검체채취 후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에는 창원시 확진자 2명이 남해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22일 우리군으로 통보됐습니다.

3일간 확진자의 우리군 방문 장소는 모두 12개소입니다. 설천면 양모리학교를 제외한 11개소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를 결정한 설천면 양모리학교에는 18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5시까지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군 접촉자로 확인된 31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확진자들의 방문 시 비공개했던 동선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경상남도 역학조사관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송파구 확진자와
창원시 확진자의 동선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한 우리군 공무원들이
접촉자를 일일이 파악해 전원 검사의뢰하고
자가격리, 능동감시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방문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과 일시 폐쇄조치까지 완료하고
추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확진자의 동선을 비공개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침을 벗어나는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군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우리군을 믿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남해대교와 노량대교, 창선-삼천포대교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출입을 사전에 통제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자는 의견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대교를 통제해 발열검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군민, 관광객들의 불편과
증상발현 전 방문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남해군을 방문한 확진자들도
증상발현 전 무증상상태였습니다.
발열검사를 실시했다라도 확진자들은 대교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전남 진도군도
24시간 진도대교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했지만,
최근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대교를 통제하고 발열검사를 실시했던
거제시와 강화군도 대교 통제를 중단했습니다.
투입인력과 예산대비
방역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군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꼭 지키겠습니다.

지난 23일 0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과
오락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4개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시설의 경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소모임과 식사, 행사 등의 대면모임도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도 모두 금지됩니다.

앞으로의 방역은 군민들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군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어떠한 조치보다 군민들의 ‘철벽 방역’이
청정 남해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외부활동을 삼가고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장소의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현재 보건소는 방역활동과 접촉자 파악 등
방역업무의 제1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잦은 폭언과 욕설로
공무원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쓰일 만큼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언어폭력을 자제하고, 남해군과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26일 오후 3시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이동경로에 변수가 많고,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남해 전역의 재해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출동 및 응급복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농경지, 어항, 시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군은 감염병과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